

‘古代 도시 광주’ 구도심 체계적 발굴 조사 시급

〈고대〉

백제시대 ‘무진주’ 중심지 역할...구도심 곳곳에서 문화유산 출토
동구청 인근 도로공사 현장에서 고려·조선시대 유물 30여 점 발굴
공공개발서만 30여년간 4차례 발견...민간사업 유물 나왔을 가능성

광주의 삼국시대부터 현재까지 1500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구도심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 조사 및 연구, 민간개발 시 사전발굴조사를 통한 역사 자원의 보존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994년부터 광주 동구 일대 구도심에서 진행된 공공개발과정에서 신라·고려·조선 유물들이 수차례 출토되고 있으나 관련 전문가 기관 외에는 무관심하고 역사적 가치에 대한 평가, 이를 통한 도시 정체성 확립 등을 위한 광주시 차원의 노력이 전무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구도심에 대한 재개발,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도 이 같은 유물이 다수 나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동구 일대에 대한 개발 시 사전 발굴조사를 의무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관련 기사 3면>



광주시 동구는 지난 4-5월 시행한 정밀발굴조사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도로 광주 동구 남동 99-3번지 일대 510㎡ 구간에서 고려 청자 조각 등 유물 30여점이 출토됐다는 내용의 ‘매장문화유산 공고’를 게시했다. 이 구간은 광주종합건설본부가 추진중인 전당 주변 광산길 확장 공사 현장으로, 본부는 유물이 나오자 재단법인 전남문화유산연구원에 정밀발굴조사를 맡겼다. 그 결과 고려시대 청자 조각, 조선시대 백자 및 청자, 용기 조각 등 자기류와 고려·조선시대 기와 조각 등이 발견됐다.

논문은 “구도심 일대의 유적과 격자자랑망, 곳곳의 절터 등을 감안할 때 통일신라의 무진도독성은 광주읍성과 중복돼 구도심에 자리했을 것”이라며 “무진도독성의 실상을 밝혀나가는 한편 이를 정비하거나 부분적으로 복원해 나간다면 도시 유적 공원으로써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광주의 유구한 역사를 알려주는 교육 및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시대에 들어 중심지가 된 서울·대구, 개항과 일제강점기 이후 대도시로 성장한 인천·부산·대전, 해방 후 산업화 과정에서 성장한 울산 등과 달리 광주는 통일신라 9주5소경 중 무진주로, 백제시대 이후 고대도시로 자리를 잡았다. 그 중심지였던 광주의 구도심 곳곳에서 신라, 고려의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임영진 원장은 이와 관련 “지금까지 구도심에서 진행된 공공개발에서 유적이 모두 나왔다는 것은 민간 개발 대상지에도 충분히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증거”라며 “구도심에 대해 광주시가 주도해 이들 유적을 철저히 보존·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와 같은 개발 허가 시스템으로는 광주의 오랜 역사를 간직한 구도심의 공간과 유물을 발굴·보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임영진 마한연구원이 지난 2008년 발표한 논문 ‘통일신라 무진도독성의 위치와 규모’에 따르면 지난 1994년 10월 북구 누문동 광주제일고등학교의 신축 공사 과정에서 통일신라 전기에 해당하는 8-9세기 유물과 건물지가 발견됐으며, 1998-1999년 광주 동구 금남로 지하철 1호선 공사 구간에서는 통일신라·고려의 기와·토기·청자 등이 다수 나왔다. 이어 2006년 동구 광산동 구 전남도청 부지에서도 광주읍성 성벽 아랫부분과 통일신라 기와가 출토되는 등 구도심 곳곳은 광주가 삼국, 통일신라,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1500년 이상의 역사를 간직한 공간이라는 것이다.

구도심의 쇠락과 인구 유출로, 곳곳이 아파트 및 주상복합 건축물로 개발되고 있는 과정에서 자칫 이들 소중한 유적들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구도심 내 개발 면적이 대부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조사 의무 면적인 3만㎡ 보다 작은데다 건물주 자진신고 없이 공사 현장에서 이를 강제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나 기초지자체의 전문인력도 전무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아이 낳으면 키워 준다더니...까다로운 조건 ▶6면

KIA 투수 알드레드 “폭주기관차 기대하라” ▶18면

박물관 기행-신안 세계 화석·광물 박물관 ▶22면

내일 현충일 신문 쉽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시 동구 남동에서 고대 유적 발굴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왼쪽 사진은 남동 일대에서 발굴된 고려 시대 암기와, 상부에 사찰 건물에 쓰였을 듯하는 만(卍)자가 새겨져 있으나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아 사진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제전남문화유산연구원 제공>

한국·아프리카 48개국 ‘핵심광물 공급협약체’ 출범 합의

‘동반·지속가능·연대’ 공동선언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대륙으로부터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상설 협의체가 구성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기도에서 주재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 48개국의 정상 또는 국가 대표와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를 출범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골자로 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는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한 광물 자원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점을 고려한 전략적 행보다.

한국이 첨단 산업 분야 선도국이고, 아프리카가 핵심 광물 보유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양측은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고, 상호 협의에 기반해 핵심 광물과 관련된 기술협력을 촉진하는 데 있어 공동의 노력을 증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특히 양측은 현 정부의 ‘글로벌 중추 국가’와 아프리카 연합(AU)의 ‘아젠다 2063’의 비전의 공동성과 상호 보완성에 주목했다.

우선 동반성장 분야에서는 상호 호혜적 경제협력을 증진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는 ▲ 교역·투자 증진 ▲ 한국의 아프리카 산업화 지원 ▲ 비즈니스 파트너십 강화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이종과세방지 협정(DTAA), 투자보장협정(IPA)과 같은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상호 상품 접근성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또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AfCFTA) 이행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디지털 정부 운영 경험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어 지속가능성 분야에서는 글로벌 과제에 대한 공동 해법 마련에 방점을 찍었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협력 강화 ▲ 토지 및 산림보호, 해양 보전 및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협력 ▲ 아프리카 수요에 부응하는 기후 금융구조 구축을 위한 연대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양측 협력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아프리카에 대한 ODA를 100억달러(한화 약 13조7600억원)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140억달러 구

모의 수출 금융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 한-아프리카 경제협력관회의(KOAFEC), 농업 장관 회의를 강화하고 관세-통계 분야 등의 고위급 협의회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국가 간 조약·협정 12건과 양해각서(MOU) 34건이 체결됐다고 4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특히 핵심광물협력 MOU 2건,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6건, 인프라·모빌리티 협력 MOU 3건 등이 체결됐고, 경제동반자협정(EPA) 2건에 대한 협상 개시 선언이 이뤄졌다. 이는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국가를 상대로 거둔 최대 규모의 외교 성과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진화, 그 이상의 새로움

The new E-Class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완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인증 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완 서비스센터 BP 062)942-7200/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방울대로 565(도천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E 220 d 4M EX · 배기량:1999, 공차중량:1975, 자동9단, 복합연비:15.4(도심연비:13.6, 고속도로연비:18.4), 등급:2, 복합CO2 배출량:122
· E 300 4M EX · 배기량:1999, 공차중량:1900, 자동9단, 복합연비:11.6(도심연비:9.9, 고속도로연비:14.6), 등급:3, 복합CO2 배출량:147
· E 300 4M AMG line · 배기량:1999, 공차중량:1900, 자동9단, 복합연비:11.6(도심연비:9.9, 고속도로연비:14.6), 등급:3, 복합CO2 배출량:147
· E 450 4M EX · 배기량:2999, 공차중량:1970, 자동9단, 복합연비:10.5(도심연비:8.9, 고속도로연비:13.4), 등급:4, 복합CO2 배출량:165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본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